

교회 회원이 미스 아메리카의 왕관을 획득함

남미에서 10년 이상을 지낸 방년 20세의 교회 회원인 설린 웰즈양이 최근 1985년도 미스 아메리카로 당선되었다.

50개의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를 대표하는 젊은 미녀들이 63년의 역사를 가진 미의 제전인 미스 아메리카 선발 제전에 참여하였다. 대의 참가자들은 재능 발표, 수영복과 야외복 심사 및 품행과 인격 등 다양한 기준에 의거하여 심사받았다. 당선자는 상장과 상품 이외에 대학 장학금을 받게 되며 전국을 순회하면서 공공 행사에 참가하게 되고 텔레비전에도 출연하게 된다.

칠십일 제일 정원회의 로버트 이 웰즈 장로와 헬렌 웰즈 자매의 딸인 새로운 미스 아메리카는 그녀의 부친이 국제 은행 협회에서 근무하고 있던 파라과이에서 태어났다. 그녀가 일곱살이 되었을 때, 가족은 미국으로 돌아왔으며, 그후 웰즈 장로가 남미를 관할하는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게 됨에 따라 아르헨티나와 칠레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최근 웰즈 장로는 브라질, 베네주엘라,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페루 및 볼리비아에서 교회의 업무를 관장하는 지역 회장단의 일원으로서 봉사하고 있다.) 설린 자매는 두 명의 오빠, 두 명의 언니 그리고 두 명의 여동생이 있다.

웰즈 자매는 재능 발표 때에 남미의 축제 의상을 입고 라틴 아메리카 고전 악기인 하아프를 연주하며 파라과이의 민속 노

래를 불러 자신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자란 배경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브리감 영 대학교에 재직중인 웰즈 자매는 이번 미의 제전에서 왕관을 차지한 것이 새로운 경험은 아니었다. 그녀는 미

스 비 와이 유와 미스 유타를 비롯한 여러 대회에서 왕관을 차지했었다. 브리감 영 대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그녀는 신문 방송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텔레비전 아나운서로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녀는 일하면서 학업을 계속하여 경영학 석사를 취득하거나 국제 문재와 경제 기사 작성을 전공할 계획으로 있다.

미스 아메리카 제전에

관한 신문과 텔레비전 기사는 웰즈 자매의 교회 부름에 관해 "물론 주일학교 교사"라고 말하고 있다. 웰즈 자매는 당선된 후 아침에 가진 기자 회견에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믿으며, 한 주일의 7일 내내 종교적인 가치관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웰즈 장로는 딸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 애가 전통적인 교회 가족의 가치관과 표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의 딸이 종교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미스 아메리카가 될 수 있었으므로 종교를 미스 아메리카로서의 책임과 따로 떼어 놓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녀가 교회를 위해 매우 훌륭한 사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대관장단이 발표한 청소년 활동에 대한 지침

대관장단은 청년 및 청년을 위한 대회 및 야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을 발표했다.

대회 및 야영(소년단 활동 포함)은 복합 지역을 근거로 하여 계획해서는 안된다. 독신 성인을 위한 활동에도 같은 정책이 적용된다.

활동은 지역 별로 개최되어 참석 인원이 많지 않을 경우에 보다 더 효율을 거둘 수 있다. 훌륭하게 계획되고 관리되는 정규적인 지역 활동은 큰 규모로 개최되는 일시적인 모임보다 더 훌륭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모임이 된다.

지역의 범위를 초과하는 활동에 대한 제안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역 회장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역 회장단의 보고서가 제출되는 집행 평의회와 신전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서울 스테이크 체육 대회

서울 스테이크에서는 10월 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청운 와드 농구장과 잔디 위에서 최 육환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로 체육 대회를 개최하였다.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가진 이날 운동회에서는 배구, 농구 등의 구기 종목과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과자 따먹기 등이 있었으며, 줄다리기, 널뛰기, 바구니 터뜨리기 그리고 차전 놀이가 힘찬 응원 속에 진행되었다.

이날 종합 우승은 신당 와드가 차지하였으며, 준우승은 농아 지부가 차지하였다. 참석 인원 : 약 300 여 명. *

전 종철 부장 서울 신전 사무장으로 부름받음



지난 6월 22일 서울 북스테이크 부장단 제2보좌로 봉사하고 있는 전 종철 부장이 대관장단의 고든 비 힐러리 부대관장으로 부터 서울 신전 사무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또한 전부장은 이 부름 이외에도 한국 계보 사업 센터 관리자로 임명되었으며 1985년 전반기에 서울 신전이 완공, 헌납되어 신전 사업이 원만하게 행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제반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 대임을 맡아 일하고 있다.

그는 7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교회 본부 신전과 및 계보과에서 연수 교육을 마치고 귀국하였으며 현재 한국 번역 출판부를 임시 사무실로 정하여 일을 하고 있다.

신전 사무장은 신전의 재정, 인사, 구매 및 기록에 관한 제반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직책이다. 그리고 그가 관리자로 일하게 된 계보 사업 센터는 회원의 계보 탐구를 효과적으로 도우며 신전 의식에 필요한 성명을 준비하여 제공하는 일을 주업무로 하는 곳이다.

전부장은 신전 사무장으로서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 한국 번역 출판부에서 18년간 봉직한 바 있으며 가족으로는 부인인 차 영심 자매와의 사이에 네 자녀를 두고있다.

부산 스테이크 청년 대회



영취산 봉도사 일구에 모인 독신성인들

“오! 너는 이 골짜기를 닮아 굴세고 강건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계명을 지킬지어다!”(니일 2:10)라는 주제로 부산 스테이크 독신 성인들은 경남 양산군 영취산에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청년 대회를 가졌다.

이번 대회는 예년과 달리 각 팀별로 활동을 하였는데 활동 장소를 이동할 때 지도상의 좌표를 지시받아서 움직이는 색다른 방법을 택하였다.

또한 활동 중 야간 행군에는 65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깊은 산중 암흑 속에서 무사히 본거지로 돌아오기도 하였다.

“자기 관리” 훈련을 겸한 형제, 자매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자신을 발견하고 또한 서로의 우정을 돈독히 하였다.

대회 마지막 날에 가진 간증회에서는 많

은 형제 자매들이 서로 훌륭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간증을 해 주었다. *

주안 와드 기공식 (인천 스테이크)

인천 스테이크의 주안 와드는 1984년 9월 25일 오전 10시 와드 건물(대지 200평 건평 150평) 기공식을 가졌다. 이 기공식은 허 채 스테이크 부장을 비롯하여 김조수 감독 그리고 와드의 신권 지도자들의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가졌다.

인천 지역에서 첫번째로 표준 건물을 갖게 되는 주안 와드 회원들은 그동안 건축 기금 모금에 많은 참여를 하였으며, 앞으로 세워질 예배당에서 많은 회원들이 모여 주님을 찬양할 것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다. *

삼성 와드 예배당 기공식 (청주 스테이크)

청주 스테이크의 삼성 와드는 1984년 10월 6일 오후 4시에 황 총열 스테이크 부장을 비롯하여 뉴먼 형제, 최 승국 감독 등 많은 회원들과 인근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예배당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최 감독은 말씀하는 가운데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정성어린 몇 톨의 돈과 상호부조회 자매들의 버스비 절약 등 회원들의 헌금 참여로 이루어진 와드 건물 기공식이라고 말씀하였고 이어서 황 총열 부장은 대전의 동부 지역이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삼성 와드의 건물은 주위에 보이는 모든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며 신앙의 기초가 다져지는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상호부조회에서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떡과 음료수 그리고 과일 등을 나누어 주었으며, 시공을 맡은 중일 건설에서는 준비한 기념 타올을 한장씩 증정하였다. *

대전시 동구 용도동 63-2번지

삼성 와드(대지 823평, 건물 150평)에서 착공을 하는 신전 역원들



인천 스테이크 대회



1984년 8월 25~26일, 동인천에 위치한 담동 와드에서는 이 호남 장로의 감리로 인천 스테이크 대회가 열렸다.

인천과 수원 등지에서 모인 많은 회원들로 예배당을 메운 이번 대회에서 5명의 장로가 탄생되었으며, 대제사와 칠십인은 각각 1명씩 성임되었다.

역원 변경으로는 스테이크 부장단의 제1보좌인 홍 장식 부장이 와명으로 해임되고 그 후임으로 제2보좌인 홍 유남 부장이 부름을 받았으며, 이 용환 형제가 제2보좌로 부름을 받았다.

이 용환 부장은 세류 지부장을 역임했으며, 인천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으로 일해 왔다.

이 호남 장로는 말씀하는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선 순위를 정하고 기록하여 매일의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매일, 매월, 매년의 계획을 세우도록 당부하였다. *

최 옥환 장로 서울 지역 대표로 부름받음



왼쪽으로부터 한 인상 장로, 이 호남 장로 그리고 새로 서울 지역 대표로 부름받은 최 옥환 장로

지난 10월 26일 서울 스테이크에서는 잭 에이치 고슬린드 장로의 감리로 역사적인 특별 모임을 가졌다.

이 대회에서 최 옥환 부장은 지역 대표로 부름을 받았으며, 그로 인하여 서울 스테이크 부장단의 개편이 있었다.

그동안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로 수고하여 온 김 용일 부장이 서울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제1보좌로 최 무신 부장 그리고 제2보좌로 이 근혁 감독이 지시되었다.

이 근혁 부장은 당분간 청운 와드 감독을 겸직하게 된다.

최 옥환 장로가 지역 대표로 부름을 받음에 따라서 이 호남 장로는 서울, 동, 동대문, 영동 스테이크를 관리하며 한 인상

장로는 종전 대로 부산 부산서, 광주 그리고 대구 스테이크를 관리하며 최 옥환 장로는 서울 서, 북, 강서, 인천 그리고 청주 스테이크를 관리하게 되었다.

한편 김 용일 스테이크 부장을 비롯한 신권 역원들은 그동안 서울 스테이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최 옥환 장로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으며, 새로운 마음으로 봉사할 것을 다짐하였다. 정 대판 형제가 지휘하는 말일성도 합창단의 노래가 있는 뒤 고슬린드 장로는 서울 스테이크 소속의 모든 회원들을 축복하면서 지도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될 것을 당부하였다. 참석 인원 약 300 여 명. *

한국 선교사 훈련원 (KMTC) 제46기 수료

한국 선교사 훈련원 개원 이래 최대로 많은 16명의 선교사들이 지난 9월 24일~28일까지 훈련을 받고 입지에서 봉사중이다. 그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 추 조양 장로-인천, 담동 와드
- 정 광순 장로-청주, 신화 와드
- 최 흥기 장로-강서, 부천 지부
- 민 경우 장로-청주, 제천 지부
- 이 상호 장로-인천, 신평 와드
- 백 진형 자매-서울, 금호 지부
- 안 양순 자매-인천, 부평 와드
- 이 경윤 자매-서울 북, 신촌 와드
- 조 선이 자매-부산, 광안 와드
- 도 부민 장로-부산 서, 영도 와드
- 진 경섭 장로-부산, 방어진 와드
- 진 승관 장로-서울 서, 신림 와드
- 문 경식 장로-광주, 목포 와드
- 장 현문 장로-부산, 포항 지부
- 전 복순 자매-부산 서, 진해 와드
- 김 회연 자매-서울 북, 마포 와드 *

한글 단지에 들어선 서울 신계를 위해 두고 함께 모인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46기 수료생 일동



초동협회 창립 106주년 기념 행사 (서울 서 스테이크)



서울 서 스테이크에서는 9월 15일 노량진 와드에서 초동협회 창립 106주년 기념 행사로 합창 대회를 열었다.

조정환 부장의 감리로 진행된 이날 모임에서 1등 상은 안양 와드가 차지하였으며, 2등은 시흥 와드 그리고 3등은 신림 와드 어린이들이 각각 차지하였다.

초동협회를 상징하는 색깔인 빨강-용기, 노랑-봉사, 파랑-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축하한 이번 행사에서는 8개의 와드와 지부의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유익한 시간을 가졌으며, 모임이 끝난 후 선물을 주고 받기도 하였다. *

진해 와드 합창 경연 대회

진해 와드에서는 각 보조 조직별 대항 합창 경연 대회를 가졌다.

장로 정원회, 상호 부조회, 독신 성인, 청년, 청녀 그리고 초동협회 회원들은 지정된 찬송가 하나와 명곡으로 실력을 겨루었다. 이번 대회에 참여한 회원들은 열심히 연습하여 단합된 보조 조직의 힘을 보여 주었고 특히 비활동 회원들을 적극 참여시켜서 교회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 주었다.

일등상은 청녀회 회원들이 차지하였다. 참석 인원 약 120 여 명. *

서울 지역 대회



서울 지역 대회

1984년 9월 22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지역 센터 신당 와드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의 감리하에 특별 신권 지도자 모임이 있었다. 이날 모임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1부에는 '신권의 권능을 합당하게 행사하는 것과 '선교 사업'을 주제로, 2부에는 '신전 사업'과 '자녀 교육'을 주제로 아시아 지역 회장단인 고슬런드 장로와 하버슨 장로와 헌터 사도가 말씀하였다.

다음 날인 9월 23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 힐튼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청주와 서울 지역의 9개 스테이크의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일반 총회를 가졌다. 대회 시작 30분 전인 10시 30분부터 장내가 차기 시작하였고 모임 시작 시간이 임박되자 좌석이 모자라서 서서 모임에 임하는 성도들도 많았다.

개회 순서가 끝나자 이어서 200여 명의 형제, 자매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특별 찬송으로 찬송가 '86장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를 불렀다.

다음 말씀 순서에 첫째로 하버슨 장로가 다니엘서를 인용한 '지혜의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씀하였고, 둘째 하버슨 자매는 '영생에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하였다. 셋째 고슬런드 자매는 '사랑의 실천'이란 주제로 말씀하였고, 넷째 고슬런드 장로는 '구원의 계획'을 주제로 말씀하였다.

다음 중간 찬송이 있는 후 한인상 장로가 '정직의 원리'를 말씀하였고, 서울 지역 대표인 이 호남 장로는 '복음의 원리'에 관한 말씀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헌터 사도는 '신전 건립을 앞둔 한국 성도들의 준비' 등에 관한 말씀을 하였고, 특별히 합창단의 아름다운 합창을 칭찬해 주었으며, '코리아 태버나클 합창단'이라는 별칭까지 주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성도들의 수는 5,493명으로 추산되었으며 모임 시작 전부터 끝날 때까지 아주 열성인 분위기 속에서 모든 순서가 이루어졌다. *